



지리산꼬리풀 / *Veronica rotunda* var. *coreana* (Nakai) T.Yamaz.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꼬리풀속
과국명	현삼과

과명	Scrophulari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현삼과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의 지리산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 지역에서 자라며 전국적으로 해발 800m 이상의 높은 산에서 자란다.</p> <p>분포지역 : 지리산 이북에서 자라며 전국적으로 표고 800m 이상의 높은 산에 난다.</p> <p>형태 : 여러해살이풀</p> <p>크기 : 높이가 1m 정도된다.</p> <p>꽃색 : 파란색</p> <p>개화기 : 7월,8월</p> <p>잎은 마주나기하며 긴 타원 모양 또는 창 모양이다. 끝이 길게 뽕족해지고 밑부분이 조금 둥글다. 가운데 달린 잎은 털이 거의 없거나 뒷면 가장자리 근처와 굽은 맥에 긴 털이 약간 있다.</p> <p>꽃은 7~8월에 하늘색으로 피고,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와 끝에서 자라는 총상꽃차례에 달린다. 꽃과 싹을 보호하는 작은 잎과 같은 구조는 선 모양이고 꽃자루보다 짧다. 꽃자루와 꽃대축에는 꼬부라진 털이 있다.</p> <p>꽃받침은 4개로 깊게 갈라지고 털이 거의 없거나 꽃받침조각의 가장자리에 털이 조금 있다. 꽃잎 전체는 4개로 갈라진다. 수술은 2개이고 길게 밖으로 나온다. 암술대에는 털이 없으며, 씨방에는 꼬부라진 털이 있다.</p> <p>열매는 삭과이다.</p> <p>줄기는 곧게 서고 전체적으로 털이 거의 없다.</p> <p>단단한 나무처럼 된 짧은 땅속줄기에서 잔뿌리가 퍼져나간다.</p> <p>물빠짐이 잘 되는 양지의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 주로 자란다. 씨앗을 뿌리거나 포기 나누기를 하여 번식시킨다. 꽃차례가 동물의 꼬리처럼 길며 높은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‘큰산꼬리풀’이라고 부른다. 국내에서만 자연적으로 나고 자라는 특산 식물이다.</p>